

손학규 한나라당 탈당

# 정계개편 지각변동 '뇌관' 되나



손학규 전 지사가 19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탈당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균열...범여권 통합논의는 활력 대선구도 보수-중도-진보 삼분 가능성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9일 한나라당을 탈당함에 따라 9개월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통령 선거의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이면서도 개혁적 성향으로 범여권 후보 적합도 1위라는 독특한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손 전 지사의 탈당은 단순히 경선 포기라는 의미를 넘어 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정치적 지각변동을 촉발하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에 맞설 여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손 전 지사의 탈당이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손 전 지사의 탈당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한나라당. 우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흥행 손실이 불가피하며 개혁 성향의 손 전 지사의 이탈로 한나라당의 보수적 색채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

여기에 한나라당 일부 대선 주자와 현역 의원들이 손 전 지사의 뒤를 따르다면 한나라당은 상당한 균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범여권의 통합 논의는 상당부분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지사의 결단에 따라 정동영 전 의장도 조만간 탈당 등 정치적 결단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손 전 지사의 새로운 정치세력 출범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열린우리당의 분열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선 구도는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 정계개편을 통한 중도개혁세력,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세력의 진보세력으로 삼분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손 전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조를 키워드로 내세움에 따라 범여권의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손 전 지사는 당분간 시민사회세력과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보수와 진보 사이에 존재하는 중도개혁의 공간에 등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지사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도개혁 성향의 '진진코리아'의 창립대회에 참석, "새 정치질서 출현은 당위"라는 요지의 축사를 한 지 나흘 만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고 손 전 지사를 비롯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박원순씨 등이 경선 참여를 선언할 경우 중도개혁세력은 한나라당에 맞설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손 전 지사의 지지율이 10%를 넘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대선 판도를 지배해온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위 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당내 지지율 3위 후보가 탈당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나타낼지도 미지수다.

특히, 민주당의 행보와 여권 주자들의 동참 여부 등 많은 변수가 남아 있어 손 전 지사의 결단이 가져올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수엑스포' 사이클 릴레이 홍보 첫날



19일 오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을 맞이한 영암지역 주민들이 군청 앞 광장에서 풍선을 날리며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 /영암=위직기자 jrwi@kwangju.co.kr

## 전남도청 광장 발대식 1천여 직원 등 참석 '열기' 영암군청 앞 소망 담은 2,012개 풍선 '두둥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이 도착하는 곳에서는 풍물패가 흥을 돋우고 색색의 풍선이 날아오르며 유치를 기원했다. 사이클 홍보단이 들르는 곳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바라는 전남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사이클 홍보단원, 1천여명의 도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의 열기는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잊게 할 만큼 뜨거웠다.

박준영 지사는 발대식 후 첫 순방 코스인 목포로 떠나는 홍보단과 함께 도청 정문까지 자전거를 타고 배웅했다. 홍보단이 목포시청에 이르는 동안 도로변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은 손을 흔들어 격려했다. 정종득 목포시장과 직원들은 서명 후 홍보단에 꽃바구니를 선물하고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릴레이 홍보기간 동안 세계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홍보단이 신안군청 앞 광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일손을 멈추고 모두 나와 박수와 환호로 맞았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명하고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힘써 지원해달라는 뜻을 담은 풍선을 날렸다.

세 번째 순방지인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는 금정농협 주부농악단이 풍물로 장단을 맞추며 홍보단을 맞았다. 특히 김일태 영암군수 등 지역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행사가 끝난 후 주민들은 2천12개의 적, 정색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며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소망했다.

첫날 마지막으로 해남군청 앞 광장에 홍보단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 해남농업기술센터 '우리가 사랑해' 풍물놀이패가 흥겹게 장단을 맞추자 퇴근길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에 참가했다. 해남지역 서명식에서는 때마침 지역구 활동을 벌이고 있던 채일병(민주당) 국회의원과 박희현 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지역 주민 모두가 박람회 유치 홍보일꾼 됩시다"

### 임용식 생활체육 전남자전거연합회장



"지역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열망입니다." 19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 전남도내 22개 시·군을 자전거로 돌며 홍보를 벌이고 있는 임용식(62) 국민생활체육 전남자전거연합회장은 "지역 주민 모두가 박람회 유치 홍보일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전거 홍보단을 이끌고 있는 임 회장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유치까지는 아직 몇차례 고비가 남아 있다"며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의 협조를 요구하기에 앞서 지역주민부터 나서서 것이 도리"라고 역

설했다.

임 회장은 특히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여수에서 실시되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현지 실사에서 실무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박람회 유치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중시할 것"이라며 "여수시민은 물론 전 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남 시군을 순회하는 홍보를 위해 회원들은 생업까지 포기하고 나섰다"며 홍보단이 지역에 들 때마다 뜨겁게 맞이해 준다면 세계박람회 유치가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적극 동참을 부탁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역대 경선불참·탈당 사례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19일 한나라당 탈당 선언이 대선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나 최근 정치사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선 불참과 탈당 선언 전례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

대표적 인물은 현재 국민중심당 소속인 이인제 의원. 이 의원은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신한국당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했으나 결과에 불복, 당을 박차고 나가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권에 도전했다

### 97년 탈당 이인제 2002년엔 중도포기 87년 DJ 통일민주당 나와 평민당 창당

고배를 마셨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의원은 이후 국민회의에 합류해 두번째 기회를 노렸지만 2002년 대선때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중도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97년 신한국당 경선에서는 9명

이 출발선을 떠났으나 김윤환, 이홍규, 박찬중 고문이 잇따라 후보를 사퇴해 6명이 완주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특히 박 고문의 경우 이인제 의원과 함께 탈당해 국민신당에 참여했다.

또 200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가 이회창 총재의 '1인 보스'체제에 반발, 탈당을 전격 선언하고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으나 이 총재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합당 형식으로 한나라당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 1992년에는 이종찬 의원의 민자당 경선 거부가 대선 정국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밖에 지난 1987년 대선에서는 통일민주당 임시전당 대회에서 김영삼 총재가 대선후보로 지명되자 김대중 고문이 이에 반발해 탈당하고 그해 11월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대선후보로 출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월을 준비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 모집에 부임

## 2007년 4월 호자 병원이 개원합니다

한방, 양방 합진병원 **유리병실의 특징**

-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

호자병원

www.hojabion.com

### 소방안전지침을 모시고자 합니다

소방안전지침을 모시고자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모시고자 합니다.

구분	소방안전지침
1. 화재 예방	가연성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모시고자 합니다.
2.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모시고자 합니다.
3. 화재 진압 시	화재 진압 시 신속히 대피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모시고자 합니다.
4.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모시고자 합니다.

소방안전지침을 모시고자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모시고자 합니다.